

歐洲思想의 由來 (五)

저자 미상

第一章 세리사 思想 (續)

(三) 科學的 特徵 (續)

씨리사 精神 또는 思想이 如何히 主智的임은 一々히 例證할 것도 無하다. 씨리사 文明은 一面으로부터 見하면 藝術의 發展이오, 一面으로부터 見하면 知識의 成長에 不外하다. 四紀前 第六世紀 頃으로부터 타레스[탈레스]를 爲始하여 데모크리투스[데모크리토스]에 至하기까지 自然科學上 並 哲學上의 天才가 輩出하여 歐洲 百代의 科學的 並 哲學的 傾向은 當時에 이미 基礎를 確立한 觀이 有하니라.

소크라테스[소크라테스]에 至하여는 此를 思想歷史 上으로부터 見하면 西洋流의 概念的 知識—個々物의 知識이 안이오 도리어 個々物에 共通 普遍인 概念的 知識의 發見者이오 建設者이니, 歐羅巴의 科學的 文明(即 概念的 文明)은 實로 소크라테스의 天才에 依하여 決定되얏다 하여도 決코 過言이 안이라. 況且 소크라테스 道德은 才能 또는 才幹(씨리사 語의 아테네)을 主位에 立하고 소위아 即 知慧를 最高至上의 才幹 乃至 美德이라 稱함이리오. 即 씨리사 道德에 在하여는 正義의 德과 並하여 知慧는 至高無上의 德이라. 智者는 即 王者이오 聖者로 尊重하니 플라톤의 哲人政治의 理想도 畢竟은 此 同一 精神으로부터 發現됨에 不外하며, 就中 씨리사 古代 物理哲學 發展의 絶頂으로 見할 데모크리투스의 原子論은 分明히 歐洲 近代 自然科學의 基礎이니, 二千五百年 前에 在하여 이미 此와 如히 緻密한 頭腦를 有한 學者가 出現함은 씨리사人이 本來 如何히 科學的이엇음을 證明할지니라.

哲人 플라톤은 씨리사 傳來의 三大 美德을 各々 相異한 精神作用에 分配하여, 感情에 在하여는 節制의 德을 意欲에 在하여는 勇氣의 德을 理性에 在하여는 知慧의 德을 立하고, 更히 此等은 各々 社會의 三階級에 應하는 것으

로 하여, 節制는 庶民의 美德 勇氣는 軍人의 美德이오, 그리하여 知慧는 實로 治者의 德이니 治者는 須히 知慧의 大美德을 具備한 哲人이라야 可하다 主張하였으니, 卽 플라톤에 在하여야는 哲人的 知識이 人生 最高의 活動으로 생각한 것이라. 況且 끼리사 思想의 全體를 總合하고 統一하였다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에 至하여야는 그 自身이 最高의 理性和 知識의 化現이라. 此와 如한 博學多才는 近世에 在하여 오히려 그 實例를 見出하기 難하다 하니, 彼는 靈魂—所謂 엔데레케이아—를 가장 單純한 動作으로부터 漸次 複雜한 作用으로 發達하는 것이라 解釋하여, 가령 一般 生物의 組織作用으로부터 爲始하여 漸次 感覺, 感情, 知覺 等으로 發達하여 마침내 理智이라는 純粹理性의 動作에 止한다 說明하였스니, 아리스토텔레스는 全體의 끼리사 思想을 總合한 者이라 하면 끼리사人이 理智의 發達로써 人生 最高의 目的이라 解釋함은 明白 하니, 끼리사人은 어디까지든지 理性을 尊重히 하는 國民이니라.

況且 플라톤과 및 아리스토텔레스의 深奧한 哲學은 또 後世의 歐羅巴의 哲學에 가장 顯著한 또 가장 深刻的 影響을 及한 것이니, 끼리사의 此二大 天才를 除하면 歐羅巴思想은 全然히 想望하지 못하리라 하야도 過言이 安임 이리오. 그 뿐 아니라 끼리사의 末期에 出現한 헤레니즘(헤라스 卽 끼리사主義)은 專히 知識尊重의 傾向이니, 知識의 尊重이 도르켜 끼리사主義로까지 생각하게 되니라.